

정답	01 ⑤	02 ①	03 ④	04 ④	05 ①	06 ①	07 ④	08 ④	09 ③	10 ①
	11 ③	12 ⑤	13 ④	14 ④	15 ②	16 ④	17 ⑤	18 ⑤	19 ①	20 ②
	21 ①	22 ①	23 ③	24 ③	25 ③	26 ①	27 ①	28 ③	29 ④	30 ①
	31 ②	32 ③	33 ③	34 ②	35 ⑤	36 ③	37 ⑤	38 ④	39 ③	40 ⑤
	41 ②	42 ⑤	43 ④	44 ③	45 ④	46 ③	47 ②	48 ④	49 ②	50 ②

해설

[01~05] (듣기)

01 다른 상황에서의 적용 ⑤

어느 부족의 말하기 관습을 바탕으로 하여 교훈을 끌어낼 수 있는가를 묻는 문항이다. 사냥을 잘 한 사람에게는 반어적으로 말을 함으로써 당사자가 공동체에 동화될 수 있도록 배려한다. 이러한 말하기 관습은 사냥을 잘 못한 사람에게는 마음의 상처를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배려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이 이야기에서 끌어낼 수 있는 교훈은 공동체의 화합을 위해 서로 배려해야 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오답 피하기** >> ① 도전 의식에 관한 내용은 전혀 언급이 없다.
 ② 타인을 본받아야 한다는 내용 역시 언급된 바 없다.
 ③ 겸손한 마음에 대한 언급은 없다.
 ④ 공정한 경쟁 역시 언급된 바 없다.

02 세부 내용의 이해 ①

라디오 방송을 사실적으로 바르게 들을 수 있는가를 묻는 문항이다. 방송 내용의 중반부에 ‘동맥에서 공급된 피가 모세혈관을 거치지 않고 글로뮬을 통해 직접 정맥으로 흐르면서’라는 부분이 있다. 이에 따르면 글로뮬을 통과한 피가 모세혈관을 거쳐 정맥으로 흐른다는 정보는 일치하지 않는다.

- 오답 피하기** >> ② ‘글로뮬이라는 관으로 피가 흐르면서 손발이 따뜻한 상태로 회복됩니다’라는 발언에서 알 수 있다.
 ③ ‘모세혈관에 들어가는 피의 양이 줄어들면서 글로뮬이 열려’라는 발언에서 알 수 있다.
 ④ ‘글로뮬을 다른 말로 동정맥문합이라고도 하는데요’에서 알 수 있다.
 ⑤ ‘글로뮬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원인에는 과식, 음주, 스트레스 등이 있다’는 발언에서 알 수 있다.

03 구체적 상황에의 적용 ④

숙박 시설에서 비상시에 행동해야 하는 유의점에 대한 대화를 사실적으로 이해하고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가를 묻고 있다. 아빠의 마지막 발화의 ‘소화전이 보통 비상경보 장치와 함께 있어서’라는 부분과 ‘비상경보 장치의 발신기 스위치를 누르면 건물 전체에 경보가 울려’라는 말을 통해, 딸이 행할 행동으로 어울리는 것은 객실 맞은편에 표시된 발신기를 눌러 비상경보를 울리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오답 피하기** >> ① 불이 났을 때 승강기를 이용하면 안 된다는 아빠의 두 번째 발화에 어긋난다.
② 피난 기구가 2층에는 없다는 아빠의 두 번째 발화에 어긋난다.
③ 유도등의 화살표 방향으로 하여 옥상이나 지상으로 갈 수 있다는 아빠의 세 번째 발화에 어긋난다.
⑤ 휴대용 비상 조명등은 휴게실과 모든 객실에 있다는 아빠의 마지막 발화에 어긋난다.

04 발화 과정의 구조적 이해 ④

주민 도서관과 관련된 문제 상황에 대한 토론 내용을 듣고 이를 사실적으로 이해하고, 구조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가를 묻고 있다. 대립된 의견을 가진 도서관 측과 이용자 측의 발언자는 각각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이용자 측 발언자는 개방 시간 연장이 어렵다면 인터넷으로 자료를 이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제안을 하였다. 따라서 자신의 종전 요구안을 고수하였다는 분석은 잘못되었다.

- 오답 피하기** >> ① 도서관 측 발언자는 도서관의 본래의 기능을 제시하며 개가식 열람실의 공간을 확대해서 좌석을 늘리겠다고 하였다.
② 이에 대해 이용자 측 발언자는 아이들의 여건을 예로 들어 개가식 열람실의 개방 시간 연장을 요청하고 있다.
③ 사회자는 두 사람의 의견을 정리하고 화제를 바꾸어 논의를 진행할 것을 제시하였다.
⑤ 도서관 측 발언자는 개방 시간 연장도 어렵고 인터넷을 통한 이용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였다.

05 세부 정보의 파악 ①

도서관 측 발언자는 첫 번째 발화에서 도서관의 본연의 기능을 언급하면서 개가식 열람실의 공간을 확대해서 좌석을 늘리고 서가가 없는 일반 열람실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도서관 측 발표자가 반영한 내용은 개가식 열람실의 좌석을 늘려달라는 요구일 것이다.

- 오답 피하기** >> ②, ③ 토론에서 언급되지 않은 내용이다.
④, ⑤ 이용자 측이 요구하거나 주장한 내용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뿐이다.

[06~10] (쓰기)

06 착안의 적절성 및 다른 상황에의 적용 ①

가야금과 관련된 내용을 문학 작품 창작에 적용하여 글쓰기를 할 때 착안을 바르게 했는가를 묻고 있다. <보기>에 따르면 문학 작품을 비유하는 가야금과 관련된 내용에서 의도된 바대로 작품이 창작되었는지 독자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끌어낼만한 내용은 없다.

- 오답 피하기** >> ② 가야금을 만드는 사람의 정성과 노력, 그리고 음감이 중요하다는 내용에서 끌어낼 수 있다.

- ③ 좋은 소리를 얻기 위해서는 좋은 나무를 골라야 한다는 내용에서 끌어낼 수 있다.
- ④ 좋은 나무를 오랜 기간 건조시켜야 하고 잘 손질해야 한다는 내용에서 끌어낼 수 있다.
- ⑤ 가야금의 각 부분들이 잘 어우러지도록 자기 자리를 잡아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에서 끌어낼 수 있다.

07 자료의 활용의 적절성 평가 ④

(가)는 리셋 증후군을 소개하고 이러한 습관이 행동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보여 주는 자료이고 (나)는 중고생의 인터넷 이용 시간과 인터넷 이용 유형을 보여 주는 자료다. 그런데 이 두 자료를 통해 리셋 증후군 증상을 보이는 청소년 가운데 원만한 대인 관계를 맺지 못하는 유형이 가장 많다는 내용을 끌어내는 것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 오답 피하기 >>**
- ① (가)에는 리셋 증후군을 보이는 사람들의 증상으로 책임감이 없다는 점과 극단적인 일을 저지른다는 내용이 있으므로 적절한 활용 방안이다.
 - ② 폭넓은 인간관계를 맺거나 활동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리셋 증후군을 보인다고 하였으므로 그 대안으로 가족이 함께하는 생활과 컴퓨터 사용 규칙을 정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 ③ (나)의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청소년이 리셋 증후군에 빠지는 원인은 그들이 놓여 있는 환경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활용한 방안이다.
 - ⑤ (나)에는 사용 목적을 정하지 않은 채 컴퓨터를 활용하는 청소년에 대해, (다)에는 중고생의 온라인 게임 중심의 인터넷 이용 유형을 보여 주고 있는데 이를 적절하게 활용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08 개요의 수정과 보완의 적절성 평가 ④

개요를 수정 보완할 의견으로 적절한 것을 찾으라는 문제이다. 개요에서 문제점과 개선 방향은 서로 호응을 이룬다는 점에 착안하면 ④가 적절하다. 문제점 세 번째 항목에 ‘학년 간 체험 활용 내용의 중복’이 있으므로 그 개선 방향에 ‘학년 간 체험 활동 내용의 차별화’를 넣는 것이 어울리기 때문이다.

- 오답 피하기 >>**
- ① 직업 체험 활용의 의의의 하위 항목으로 수정 방안이 어울리지 않는다.
 - ② 직업 탐색을 통한 진로 선택 기준 제공과 직업과 관련한 능력 향상에 대한 동기 유발은 중복된 내용이 아니다.
 - ③ 하위 항목으로 볼 때 상위 항목은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다.
 - ⑤ 주제를 고려할 때 현재의 결론은 문제가 없다.

09 고쳐 쓰기의 적절성 평가 ③

불완전한 글을 적절하게 수정 보완할 수 있는가를 묻고 있다. ‘파묻히게 되면’은 ‘파묻다’의 피동형 ‘파묻히다’에 ‘-게 되면’이 결합한 형태이다. 따라서 ‘파묻히게 되면’은 이중 피동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바르게 수정하려면 ‘파묻게 되면’으로 고쳐야 한다.

- 오답 피하기 >>**
- ① 폐휴대전화 수거 운동이 화제이므로 휴대전화에 대한 애착은 삭제해야 한다.
 - ② 환경오염은 낮추는 게 아니라 줄이는 것이 더 어울린다.
 - ④ 앞 문장에 휴대전화에는 금, 은, 동의 귀한 금속 자원이 들어 있다고 하였으므로 위치를 옮기는 것이 적절하다.
 - ⑤ 폐휴대전화 수거 운동에 동참할 것을 권유하는 것이 전체적인 내용이므로 적절한 문단 배치 방안이다.

10 조건에 맞게 쓰기의 적절성 평가 ①

조건에 맞는 표현을 골라낼 수 있는가를 묻고 있다. ‘양면성’을 통한 ‘대구’와 ‘활유’를 통한 ‘호소력’을 높인 표현은 ①이다. ‘자원 활용은 두 배로, 환경 오염은 반으로’는 양면성과 대구를 보여주고 있고, ‘우리에게 맡기세요, 폐휴대전화, 지구가 아프지 않게’는 활유를 통해 호소력을 높이고 있다.

- 오답 피하기** >> ② 활유가 없고 대구도 없다.
 ③ 대구가 없다.
 ④ 대구가 없다.
 ⑤ 활유가 없다.

[11~12] (어휘 · 어법)

11 어휘 용례의 이해와 적용 ③

다의어와 동음이의어의 원리를 이해한 후 이를 통해 동일한 어휘를 분류할 수 있는가를 묻고 있다. ‘기방을 듣다, 고개를 듣다, 반기를 듣다’의 ‘듣다’는 어떤 곳보다 더 높이라는 의미를 갖는다는 점에서 다의어에 속한다. 한편 ‘감기가 듣다, 단풍이 듣다, 보험을 듣다’의 ‘듣다’는 어떤 것에 속하거나 들어간다는 의미를 지니므로 유의어에 속한다.

12 맞춤법의 이해와 적용 ⑤

맞춤법 규정을 이해하고 이를 바르게 적용하고 있는가를 묻고 있다. ④를 보면 ‘ㄱ, ㅂ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아니한다’고 하였다. 이에 따른 단어로는 ‘깍두기’를 들 수 있다. ‘깍뚜기’로 발음이 되지만 같은 음절도 아니고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경우도 아니기 때문이다.

- 오답 피하기** >> ① ㉠의 단어들을 보면 ‘어깨’의 경우는 모음 뒤, 나머지 단어들은 ‘ㄴ, ㄹ, ㅁ, ㅇ’ 받침 뒤에서 된소리로 표기되고 있다.
 ② ‘납작’이 ‘납작’으로 발음되는 것은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된소리가 아니므로 ‘납작’으로 적는다.
 ③ 반대로 ‘짹짹하다’는 ‘ㅂ’ 뒤에 나는 된소리이지만 같은 음절이기 때문에 ‘짹짹하다’로 적는다.
 ④ 둘 이상의 단어가 어울리거나 접두사가 붙어서 이루어진 말은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고 하였으므로 ‘물’과 ‘병’이 결합된 단어는 어원을 밝혀야 한다.

[13~16] (현대시) (가) 윤동주, ‘자화상’ (나) 고은, ‘선제리 아낙네들’ (다) 김명인, ‘그 나무’

13 공통점 찾기 ④

(가)의 시적 대상은 화자 자신이다. 화자는 자신을 성찰하면서, 미운 감정과 불쌍한 감정을 동시에 느끼고 있다. (나)의 시적 대상은 ‘선제리 아낙네들’이다. 이들은 장에서 물건을 다 팔지 못하고 헐 값에 물건을 넘긴 후 밤길을 걸어 귀가하는 상황이다. 이들에 대해 화자는 ‘빈 배 요기도 못하고 오죽이나 가벼울까’와 같이 반어적 표현을 통해 동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의 시적 대상은 ‘그 나무’이다. ‘그 나무’는 ‘그늘’ 속에 숨어 있지만 꽃망울을 달고 있다. 화자는 이와 같은 대상에 대해 ‘안쓰러웠지요’라고 딱하게 여기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 오답 피하기** >> ① 대상의 현재 상황에 대한 화자의 비판적 태도는 어느 작품에도 들어 있지 않다.

- ② '낙관적 전망'이라는 말은 화자나 혹은 시적 대상에 대해 이후에는 좋아질 것이라고 여기는 태도이다. 세 작품 모두 낙관적 전망이라고 단정하기는 쉽지 않다. (가)의 경우는 화자의 현재 상태, (나)의 경우도 선제리 아낙네들의 현재 상황, (다)의 경우는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화자의 소망을 드러내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있다.
- ③ 대상과 일체가 되려는 의지는 어느 작품에도 들어 있지 않다.
- ⑤ 대상에 대한 화자의 대결 의식은 어느 작품에도 들어 있지 않다.

14 외적 준거에 의한 감상 ④

부정 발문의 경우 <보기>의 정보를 왜곡하거나 없는 정보를 활용하여 구성된 선지에 주목해야 한다. <보기>의 정보에 따르면 우물 속의 '자화상'은 '자신의 존재에 대한 화자의 인식과 태도를 다층적으로 담아내고 있는 그림'이다. 그런데 ④에서는 '존재 탐구를 끝낸 화자'로 왜곡하고 있다.

- 오답 피하기** >> ① 외적 정보에 의하면 우물은 자신의 모습을 투영해 보는 공간이다. 그런데 그 공간은 '외딴' 곳에 있으며 화자는 그곳에서 '홀로' 자신을 들여다보기 때문에 적절한 이해이다.
- ② 외적 정보에 의하면 우물은 하늘을 향해 있는 '동굴'이다. 따라서 화자가 우물을 들여다보는 행위는 곧 하늘을 들여다보는 행위와 동일하며 우물 속 풍경은 화자가 지향해 온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⑤ 외적 정보에 의하면 '우물'은 모태적 공간이다. '추억'은 고향과 연결되기 때문에 고향과 같은 모태적 공간을 통해 화자를 성찰하고 있다는 판단은 적절하다.

15 비교 이해 ②

구절 반복과 어미 반복의 차이에 주목해야 한다. [A]에서는 '짓어댄다'와, '남이 아니다'를 중심으로 유사한 구절을 반복하면서 운율감을 드러내고 있지만, [B]에서는 '-지요'와 같은 어미를 반복하면서 운율감을 드러내고 있다.

- 오답 피하기** >> ① [A] 개가 짖는 소리, 선제리 아낙네들의 말소리, 기러기 울음소리가 대비되는 것은 아니다. '남이 아니다'란 구절을 볼 때 이와 같은 소리에서 화자는 동질성을 느끼고 있다. [B]는 길을 따라 활짝 핀 벚나무들과 '시멘트 개울 한구석'에 있는 '그 나무'를 대비하고 있다.
- ③ [A]의 '추운 땅으로 떨어뜨리는 소리'에서 '소리(청각)'를 떨어뜨릴 수 있는 어떤 대상으로 감각화하여 표현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공감각적 심상을 사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B]에는 공감각적 심상이 드러나 있지 않다.
- ④ [A]에는 현재 시제를 [B]에는 과거 시제를 사용하고 있다.
- ⑤ 의성어는 소리를 흉내 내는 말이다. [A]에서는 청각적 심상을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멍멍'이나 '웅성웅성'과 같은 의성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 [B]에서는 청각적 심상을 사용하고 있지 않고 의성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

16 시어 및 시구의 이해 ④

'봄길'이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는 공간임은 적절하다. 그렇지만 화자에게 '봄길'은 '헤매고 다녔던 길'이다. 즉 화자가 과거에 방황했던 시간이자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봄길'은 '늦깎이 깨달음'을 얻으려는 공간이다. 뒤늦게 자신을 돌아보며 삶의 깨달음을 얻으려는 공간이기 때문에 일탈적 삶에 대한 갈망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피하기** >> ① 선제리 아낙네들이 군산 장터에서 물건을 팔고 귀가하는 상황임을 전제한다면 ㉠이 그들이 귀가하는 공간이자 현재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다.

- ② '끼리끼리'는 여럿이 무리를 지은 상황을 의미하고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화자는 '의좋은 한세상'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 ③ '환하게 타오를 것이므로'에서 '늦된 나무'에 대한 화자의 기대가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⑤ '소신공양'은 부처 앞에 자신을 태워 바치는 자기희생적 행위를 의미한다. 화자는 가을이 되어 많은 나무들이 단풍으로 물드는 상황을 '불타는 소신공양'에 비유하고 있다. 그 가운데서 '늦된 나무'도 여름을 견디고 단풍이 들어 세상을 아름답게 물들이는 데 미약하나마 기여하게 될 수 있기를 화자는 소망해 본다. 이와 같은 소망은 화자 자신의 소망과 겹쳐지는데, 그것은 자신도 '불타는 소신공양'은 아닐지라도 '가난한 소지'처럼 미약하나마 세상에 기여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를 통해 '가난한 소지'는 '불타는 소신공양'과 대비되어 화자의 겸손한 태도를 드러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17~20] (인문)

17 세부 정보 확인 ⑤

개혁의 사상적 기초는 첫째 문단 '이러한 생각에 기초하여'에서 확인할 수 있다(①). 개혁의 시대적 배경은 둘째 문단 '춘추 중기에는 ~ 이어졌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②). 개혁 조치의 내용은 셋째 문단 전체에서 확인할 수 있다(③). 개혁 조치의 영향은 '백성의 위상을 높였다'와 '폐단을 낳기도 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④). 그러나 개혁에 대한 계승과 관련된 정보는 확인할 수 없다.

18 반응의 적절성 이해하기 ⑤

반응의 적절성 문제는 선지 내용이 본문에 언급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선지에 없는 내용, 왜곡된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된 선지는 반응의 적절성에 위배된다. 셋째 문단에 형법을 성문화하여 법치의 세웠는데 귀족들은 '이 개혁 조치에 반발하였다'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귀족들이 법치 전통을 세우겠다는 반응을 보인다는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피하기** >> ① 셋째 문단에 모든 백성을 위한 법치 체계를 세웠다는 내용이 있다.
 ② 넷째 문단에 법을 알기 위해서는 백성들도 글을 알아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③ 셋째 문단에 백성들이 개간을 통해 경작지를 늘릴 수 있도록 했다는 내용이 있다.
 ④ 셋째 문단에 백성들로 하여금 경작지를 등록하고 민부를 국부로 연결시키고자 했다는 내용이 있고 이와 같은 개혁적 조치에 귀족들이 반대했다는 내용이 있다.

19 관점 적용 평가하기 ①

이와 같은 유형의 문제는 <보기>에 제시된 관점의 핵심이 가장 잘 반영된 선지에 주목해야 한다. <보기>에는 노자의 사상이 언급되어 있는데 그 핵심은 통치자의 무위이다. 인간의 삶을 규정하는 모든 통치 행위는 허위임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법의 정비를 통한 통치 행위를 강조한 '자산'과 대비된다. 따라서 정답은 이를 비판하면서 노자의 사상이 잘 드러나 있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인간 문제를 인간이 인위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허위임을 표명하고 있는 ①이 가장 적절하다.

- 오답 피하기** >> ② <보기>의 노자에 따르면 자연의 원리는 무의지적이다. 따라서 자연을 의지를 지닌 존재로 이해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 ④, ⑤ <보기>에서는 인간의 삶을 인위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런 점에서 모두 적절하지 않다.

20 사전적 의미 파악 ②

- ㉠ ‘집정’은 ‘정권을 잡다’는 의미이다. ‘군주를 대신하여 나라를 다스린다’는 의미는 ‘섭정’이다.

[21~24] (예술)

21 개념 이해하기 ①

‘전통적인 철학적 미학’에 대한 세부 내용은 둘째 문단에 서술되어 있다. 둘째 문단을 확인해 보면 ‘참된 예술은 훌륭한 내용과 훌륭한 형식이 유기적으로 조화될 때 달성된다’라고 되어 있다.

- 오답 피하기** >> ② 체계 이론 미학이 자율적 예술의 탄생을 주도적으로 이끈 이론이라는 정보는 없다. 다만 이 이론에서는 자율성을 예술의 본질로 여긴다는 정보만 언급되어 있다.
③ 예술 장르를 바라보는 두 가지 이론이자 틀이기 때문에 적용될 수 있는 예술 장르가 다른 것은 아니다.
④ 체계 이론 미학이 전통적인 철학적 미학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이론이란 언급은 없다.
⑤ 두 이론의 차이는 무엇을 예술의 본질로 볼 것인가에 있다. 어느 것이 더 우위에 있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22 관점 적용 이해하기 ①

넷째 문단에 <캐츠>에 대한 설명과 작품의 특징을 언급하고 있다. 이 작품은 내용의 전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발한 무대에서 얼마나 다채롭고 완성도 있는 춤과 노래가 펼쳐지는가에 있다’라고 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최근의 관점’이다. 따라서 내용에 대한 언급을 감상의 포인트로 하고 있는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피하기** >> ② ‘주제 구현이란 측면에서 감상하고자 했기 때문에 거리가 멀다.’
③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연민’이란 정서 즉 내용성과 연관 지어 감상하고자 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④ ‘원작의 심오한 주제’와 연결 지어 감상하고자 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⑤ ‘삶과 내면’이라는 내용과 연결 지어 감상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23 핵심 내용 적용하여 이해하기 ③

이 글의 핵심은 ‘전통적인 철학적 미학’과 ‘체계 이론 미학’을 바탕으로 한 뮤지컬 이해이다. 전자는 정신적 내용의 미적 형상화를 추구했고, 후자는 내용적 구속성에서 벗어나 미적 유희를 추구하는 예술의 자율성을 중시한다. <보기>에서 ‘그리스 비극’은 형식뿐만 아니라 세계와 삶이라는 내용적 측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언급되어 있다. 반면 ‘근대의 오페라’는 ‘음악 내적 요소’를 중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언급되어 있다. 그렇다면 ‘그리스 비극’은 ‘전통적인 철학적 미학’의 관점에서 높게 평가될 수 있고, ‘근대의 오페라’는 ‘체계 이론 미학’의 관점에서 높게 평가될 수 있다.

24 문맥적 의미의 동일성 파악하기 ③

등한시 : 소홀하게 보아 넘김

- 오답 피하기** >> ① 멸시 : 업신여기거나 하찮게 여겨 깔봄
② 천시 : 업신여겨 낮게 보거나 천하게 여김
⑤ 이단시 : 어떤 사상이나 학설, 종교 따위를 이단으로 봄

[25~26] (기술)

25 내용의 추론적 이해 ③

‘배열’을 설명하는 둘째 문단 셋째 문장에서 ‘원하는 자료의 논리적 순서만 알면 ~ 바로 접근하여 읽기와 쓰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으므로 ③의 ‘자료의 논리적 순서에 따라 자료 접근 시간이 달라진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피하기 >> ① 첫째 문단 ‘포인터’의 정의와 이하 문단(특히 셋째 문단)에서 포인터를 이용하여 자료에 접근함을 알 수 있다.
- ② 이 글은 자료 관리 구조를 ‘배열’, ‘연결 리스트’, ‘이중 연결 리스트’의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각각의 구조에 따라 자료 접근 과정이 다르다.
- ④ 셋째 문단에서 ‘연결 리스트’ 구조는 자료의 삽입과 삭제가 상대적으로 간단하다고 하고 있으므로 전체 자료의 개수가 변할 때 편리함을 알 수 있다.
- ⑤ 넷째 문단에서 ‘이중 연결 리스트’는 ‘다음 포인터’뿐만 아니라 앞에 연결된 저장소의 포인터를 하나 더 연결하므로 한 저장소에 세 가지 다른 정보가 저장된다.

26 제시글을 바탕으로 한 <보기> 자료 이해 해석 ①

둘째 문단 마지막 문장 ‘배열’은 ‘삽입하거나 삭제하는 자료의 순번이 빠를수록 나머지 자료의 재정렬 시간이 늘어난다.’고 하고 있고, 셋째 문단 셋째 문장에서 ‘연결 리스트’에서는 ‘자료의 삽입과 삭제는 ~ 상대적으로 간단하다.’고 하고 있으므로 ㉠이 ㉡보다 삭제 및 삽입 실험에 걸리는 총시간이 길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

- 오답 피하기 >> ②, ④ 이 글을 통해 ㉠, ㉡, ㉢ 각 구조의 ‘메모리 사용량’은 알 수 없다.
- ③ ㉠이 ㉠보다 삭제 및 삽입에 걸리는 시간이 짧을 것이다.
- ⑤ 셋째 문단과 넷째 문단의 마지막 문장들을 비교해 보면 ㉢이 ㉡보다 읽기가 용이함을 추리할 수 있으므로 ㉢이 ㉡보다 읽기 실험 총시간이 짧을 것이다.

[27~31] (장르 복합) (가) 정극인, ‘상춘곡’ (나) 김광옥, ‘율리유곡’ (다) 박규수, ‘범희문화서도원림’

27 공통점 찾기 ①

(가)에서는 ‘산림에 묻혀 있어 지락을 모를 것인가.’에서 자연에 묻혀 사는 화자의 만족감을 설의적 표현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나)에서는 ‘나같이 군마음 없이 잠만 들면 어찌리’, ‘삼공이 귀하다 한들 강산과 바꿀소냐’, ‘이 몸이 처흥을 가지고 만호후인들 부러우랴’, ‘아무리 매인 새 놓인다 한들 이토록 시원하랴’에서 자연 속에서 살아가면서 만족하는 화자의 삶을 설의적 표현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 오답 피하기 >> ② (가)에서는 ‘도화행화는 석양리에 피어 있고 녹양방초는 세우중에 푸르도다’에서 부분적으로 색채의 대비를 통해 표현 효과를 높이고 있지만, (다)에서는 색채의 대비를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 나타나 있지 않다.
- ③ (나)에서는 ‘동풍이 건 듯 불어 ~ 나노매라’에서 감각적 이미지(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한 계절감(겨울)이 드러나 있다. 하지만 (다)에서는 감각적 이미지(시각, 미각적 이미지)가 드러나 있지만 이를 활용하여 계절감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 ④ (가)~(다)에는 풍자적 표현이 나타나 있지 않다.
- ⑤ (가)에서는 시간의 흐름을 통해 봄의 자연물들의 속성이 드러나고 있지만, (나), (다) 모두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글이 전개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물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28 자료를 활용한 작품의 이해 ③

<보기>는 세속적인 소유를 거부한 인물의 삶의 태도가 (ㄹ)의 창작의 계기가 되었음을 보여 주고 있으며, (가)의 굳이 소유하지 않아도 즐기는 데 방해받지 않는다는 관점으로 <보기>에서 제시된 인물의 삶의 태도를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가)의 삶의 태도는 (㉠), (㉡), (㉢), (㉣)의 삶의 태도(산림에 묻혀서 자연과 물아일체 속에서 흥을 느끼고 부기영화를 부러워하지 않고 청흥을 느끼며 세속의 국속에서 벗어나 시원함을 느끼는 삶)와 서로 통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에 제시된 백구가 갈 숲으로 서성이며 고기를 엿보는 모습은 세속적인 소유를 바라며 기회를 엿보는 속물적인 당시 사대부들의 삶의 모습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가)의 관점과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

- ① (㉠) : 자연에 묻혀 살며 지극한 즐거움(풍류)을 아는 삶의 모습이 제시되어 있다.
- ② (㉡) : 자연과 일체가 된 삶에서 느끼는 흥을 말하고 있다.
- ④ (㉢) : 세도가가 부럽지 않을 자연 속에서의 흥취를 제시하고 있다.
- ⑤ (㉣) : 세속의 헛되고 시끄러운 문서를 다 내던지고 자연으로 돌아 온 뒤의 시원함을 제시하고 있다.

29 맥락의 의미 파악 및 비교 ④

[A]에서는 봄의 아름다운 정경을 제시한 뒤 봄기운을 이기지 못하고 있는 새의 모습을 통해 봄을 완상하고 즐기는 흥겨움이 드러나 있다. 그리고 [C]에서는 동풍이 불어 적설을 다 녹인 상황에서 청산의 모습이 변함없는 모습과 대조적으로 화자의 흰 머리(귀밑의 해묵은 서리)를 여전히 남아 있음을 안타까워하며 서글픔을 느끼고 있다. 결국 화자에게 봄은 화자 자신의 상황에 대한 서글픔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오답 피하기 >>

- ① [A]에서 봄은 흥겨움을 주는 계절일 뿐 인간의 유한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C]에서 봄은 화자의 유한함(늙음)을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되고 있지만 봄이 유한성을 상징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 ③ [A]와 [C] 모두 봄과 대조되는 겨울이 표현되어 있지 않다.
- ⑤ [A]와 [C] 모두 봄을 묘사하고 있다. 하지만 근경에서 원경으로 또는 원경에서 근경으로 묘사하고 있지는 않다.

30 맥락의 의미 파악 ①

[B]에서 화자는 뒷집에서 거치 보리 한 말 정도도 되지 않는 술쌀을 꾸어 와서 찹고 괴어서 술을 빚었다. 그리고 여러 날 주린 뒤 마신 술이기에 달거나 쓰거나 어쩔든 좋다고 말하고 있다. 결국 화자는 조출하고 소박한 삶의 모습을 나타나 있다.

오답 피하기 >>

- ② 사회적 규범이 나타나 있지 않으며 이를 따르려는 자세도 나타나 있지 않다.
- ③ 화자는 농가에서 술쌀을 꾸어와 술을 빚어 마시는 삶을 제시하고 있다. 농가와 자연을 분리하려는 의지와는 관련이 없다.
- ④, ⑤ 공동체를 헌신이나 숭고한 삶에 대한 지향과는 관련이 없다.

31 태도의 적용과 이해 ②

(가)와 같은 사람은 산과 빼어난 경치를 자기가 소유하려고 하고, 어느 것이 낫고 모자란다면 제각기 자랑하고, 고정된 견해와 평가를 따르고, 작은 볼거리에 구속되어 큰 볼거리를 놓치는 사람이다. 하지만 (나)에 제시된 사람은 이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풍경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또 같은 풍경이라도 때에 따라 변모함(둘째 문단) 이하는 사람이다. 즉 지리산에 갈 때마다 모습도 다

르고 느낌도 다르다고 느끼고 있는 사람이다. ②는 ①과 같은 사람의 태도로 보기 어려운 모습이다.

[32~36] (과학)

32 세부 정보의 확인 ③

교황 그레고리우스 13세가 역법 개혁을 명령하여 그레고리력의 기초를 놓은 인물이 율리우스임이 제시되어 있다. 특히 부활절을 정확하게 지키지 못하는 문제로 역법 개혁을 명령했다는 내용을 통해 율리우스가 교회의 요구에 부응하여 역법 개혁안을 마련했음을 알 수 있다.

33 내용의 논리적 추론 ③

셋째 문단에서 율리우스력과 그레고리력 모두 눈에 보이는 태양의 운동만을 근거로 1년의 길이를 정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서양의 태양력에서 보름달이 돌아오는 주기를 고려했다는 ②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다만 부활절을 정할 때 춘분을 지나서 첫 보름달이 뜬 후 첫 번째 일요일을 부활절로 정한 교회의 전통적 규정을 통해 보름달이 돌아오는 주기가 고려되었음을 알 수 있지만 태양력과 달의 주기와의 관련성은 나타나 있지 않다.

34 내용의 비판적 추론 ②

다섯째 문단에서 그레고리력의 기초를 놓은 율리우스가 당시 가장 정확한 천문 데이터를 모아 놓은 알폰소 표에 제시된 회귀년 길이의 평균값을 채택하자고 했음을 근거로 판단한다면 '㉠ 그레고리력'이 '㉡ 율리우스력'보다 더 정확한 관측치를 토대로 제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5 구체적 상황에의 적용 ⑤

[A]에서 항성년은 태양과 지구와 어떤 항성이 일직선에 놓였다가 다시 그렇게 될 때까지의 시간이다. <보기>에서 철수(지구)가 창가를 따라 걸어서 폭포(어떤 항성)에 가장 가까운 창가 위치에 까지 돌아오는 데 걸리는 시간이 대응된다. 한편 지구가 한 바퀴를 돌아 원래 위치로 다시 돌아온 시간에 해당되는 회귀년은 철수가 창가를 따라 한 바퀴를 돌아 그 식탁으로 돌아오는 데 걸리는 시간과 대응된다. 또한 [A]에서 회귀년이 항성년보다 짧다고 하였으므로 ㉠ 57초가 회귀년 ㉡ 60초가 항성년에 해당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항성은 돌지 않고 지구가 공전 궤도를 돌고 있으므로 철수가 지구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다.

36 어휘의 쓰임 파악 ③

㉠의 '-으로'는 조사로서 지위나 신분 또는 자격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③ '그가 동창회의 차기 회장으로 뽑혔다.'에서 '-으로'가 ㉠의 쓰임과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 ①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서'에서 '-으로'는 어떤 물건의 재료나 원료를 나타내고 있다.
- ② '토론으로 해결하자'에서 '-으로'는 어떤 일의 방법이나 방식을 나타내고 있다.
- ④ '간부들을 현장으로 불렀다'에서 '-으로'는 움직임의 방향을 나타내고 있다.
- ⑤ '독감으로 고생했다'에서 '-으로'는 '말미암아', '인하여', '하여' 등이 뒤따를 때 어떤 일의 원인이나 이유를 나타낸다.

[37~39] (언어)

37 내용의 사실적 이해 ⑤

다섯째 문단에서 사례로 제시된 두더지가 ‘두디쥐 > 두더지’의 어형 변화로 이것이 합성어였음을 알아차리기 쉽지 않음이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숫돌’의 사례에서 보듯 형태 변화와 어휘 소멸로 단어의 원래 짜임새를 알기 어렵다는 진술이 나타나 있다. 이를 통해서 판단한다면 언어 변화는 단어의 짜임새를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기도 함을 확인할 수 있다.

38 구체적 상황에의 적용 ④

[15세기] ‘거우루엣’의 ‘엣’은 [오늘날] ‘거울에 있는’으로 해석됨을 알 수 있다. 이로 볼 때 ‘거우루엣’의 ‘엣’은 부사격 조사의 기능(‘에’)과 관형격 조사의 기능(‘스’)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오늘날 ‘귀에 걸다’의 ‘에’가 지닌 부사격 조사의 기능과는 다름을 알 수 있다.

39 독자의 비판적 반응 ③

㉠ ‘오르내리다’는 두 개의 용언 어간끼리 결합한 합성어이다. 하지만 ㉢ ‘읽어갈무리하다’는 용언 어간끼리 결합한 합성어가 아니다. 즉 어간 ‘읽’에 연결어미 ‘어’가 결합하고 다시 어간 ‘갈무리하다’가 결합한 형식이다. 즉 ㉢은 두 개의 용언 어간끼리 결합한 합성어가 아니다. 따라서 ㉢은 ㉠의 합성어 형성 방법을 잘못 적용한 사례이다.

[40~43] (현대 소설) 이호철, ‘나상’

40 서술상 특징 ⑤

형이 밤이면 동생의 귀에 대고 이야기를 하거나 서러움에 우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보여 줌으로써 인물의 성격을 구체화하고 있다.

오답 피하기 >>

- ① 형이나 동생의 외양을 상세하게 묘사한 부분이 없으며 희화화의 의도도 없다.
- ② 내적 독백보다는 인물의 대화와 행동을 통해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
- ③ 시간의 흐름에 따른 서술로 현재와 과거의 교차 서술은 보이지 않는다.
- ④ 간접 인용은 없고 인물의 대화를 직접 인용한 부분만 있다.

41 세부 사항의 이해 ②

㉠의 ‘담중’은 형의 다리가 정상적이지 못함을 알 수 있게 해 주지만, 형과 동생 사이의 갈등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피하기 >>

- ① ㉠의 ‘첫눈’은 아래에서 ‘형의 얼굴에는 천진한 애들 같은 선망의 표정이 이려 있고 했다.’와 연관되어 순수한 형의 동심을 일깨우는 소재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③ ㉢의 ‘들판’은 바로 앞의 수식어 ‘초라한’과 연결되어 힘들어 하는 형의 내면을 보여 준다 고 할 수 있다.
- ④ ㉢의 ‘형의 걸음’은 절룩거림을 통해 형이 낙오되어 죽는다는 뒤의 내용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 ⑤ ㉢의 ‘함박눈’은 차가운 이미지를 통해 현실적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형이 죽어가는 상황의 비극적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42 다른 갈래에의 적용 ⑤

동생이 ‘부러 큰 소리로’ 말한 것은 형이 본래의 모습을 되찾기를 바라는 그런 것이었으나 형이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자 동생은 형의 이상을 직감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으므로 무심하게 바라보는 것은 상황에 맞지 않는다.

- 오답 피하기** >> ① 모두 잠든 상황이지만 늘 감시 속에 있으므로 잠든 척 누워 있는 동생의 모습은 적절하다.
② 담중 얘기를 통해 형이 정상적이지 않음을 알았으므로 형을 걱정하는 동생의 표정은 적절한 상황 표현이다.
③ 형의 평소답지 않은 쓸쓸한 웃음과 말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동생이므로 형에게 기대어 공감하듯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은 적절한 상황 표현이다.
④ 형이 다리가 이상하다는 사실을 알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동생이므로 안타까운 눈빛을 보여 주는 것은 적절한 감정 표현이다.

43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의 이해 ④

‘형’의 친진한 모습에서 폭력에 대한 저항은 읽을 수 없다. 다만 폭력에 희생당하는 순수함의 비극성이 고조될 뿐이다.

- 오답 피하기** >> ① 제목 ‘나상’은 ‘벌거벗은 모습’을 의미하는 것으로 형의 순수한 상태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② 제시문의 ‘경비병’은 형과 동생을 늘 감시하는 존재로 <보기>를 바탕으로 사회적 상징성을 감안한다면 인간의 본성을 억압하고 길들이는 감시망으로 볼 수 있다.
③ <보기>에서 ‘포로 호송이라는 상황’을 ‘구성원을 획일화하는 사회’에 비유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보기>에서 ‘형이 외부의 폭력에 희생되는 모습’이라고 하였고 이 글에서 형이 더 이상 견디 못하고 주저앉았으므로 감시자의 계속 걸으라는 요구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데 따른 형의 희생이라고 볼 수 있다.

[44~46] (사회)

44 설명 방식의 이해 ③

유사한 원리를 보이는 현상에 빗대어 설명한 비유나 유추는 사용되지 않았다.

- 오답 피하기** >> ① 첫째 문단 마지막 문장에서 채권 가격은 현재 가치, 만기, 지급 불능 위험 등 여러 요인에 따라 결정된다고 언급한 후, 이하 문단에서 이를 구체화하고 있다.
② 넷째 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셋째 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첫째 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45 내용의 추론적 이해 ④

넷째 문단에서 지급 불능 위험이 있는 채권 가격은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된다고 하고 있으므로 높은 순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 오답 피하기** >> ① 이 글을 통해 채권의 액면 금액이 정해지는 원리는 알 수 없다.
② 둘째 문단 첫째 문장에서 채권의 순수익은 채권의 현재 가치에서 채권의 매입 가격을 뺀 것임을 알 수 있다.
③ 채권 소유자는 정기적으로 이자액을 받고, 만기일에 마지막 이자액과 만기 금액을 받으므로 이자율이 높을수록 채권 선호도가 상승하여 채권 가격은 상승할 것이다.
⑤ 지급 불능 위험과 액면 이자율의 관계는 명시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지급 불능 위험이 낮으면 액면 이자율이 낮을 것이다.

46 그래프를 통한 이해와 적용 ③

㉠ '만기일이 다가올수록 채권 가격은 금리 변화에 덜 민감해진다.'에 따르면 A 그래프는 가격 변화폭이 가장 적은 ㉡로 이동할 것이다. ㉣ '주식 투자를 통한 수익이 커지면 상대적으로 채권에 대한 수요가 줄어 채권 가격이 하락'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A 그래프는 가격 하락이 가장 심한 ㉢로 이동할 것이다.

[47~50] (고전 소설) 작자 미상, '운영전'

47 세부 사항의 이해 ②

'특'이 맹인에게 한 말은 자신의 주인인 김 진사를 포함하기 위한 것으로 어디에도 운영이 도둑을 맞았다는 내용은 없다.

- 오답 피하기** >> ① 이 글에서 '뒤늦게야 특의 소행을 알고 노비 십여 명을 거느리고 가서 불시에 특의 집을 포위하고 수색을 했습니다.'라는 부분을 통해 알 수 있다.
- ③ 이 글에서 '그때 맹인의 이웃이 옆에 있다가 그 이야기를 다 듣더니'와 '이런 말들이 전 파되어 궁중으로 들어가 대군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등의 부분을 통해 알 수 있다.
- ④ 이 글에서 '대군은 크게 화가 나서 남궁 사람들에게 서궁을 수색하게 하니'라는 부분을 통해 알 수 있다.
- ⑤ 이 글의 '은섬의 대사에는 자신들의 결백을 주장하는 내용이 있을 뿐 다른 궁녀에 대한 원망은 나타나 있지 않다.

48 상황의 이해 ④

이 글의 '은섬의 대사 중 '저희는 오로지 주군의 위엄을 두려워하여, 이 마음을 굳게 지키면서 궁중에서 말라 죽을 생각뿐이었습니다.'를 보면 궁녀들이 담을 넘지 않은 것은 '대군'의 위엄 때문임을 알 수 있고 이는 궁녀들이 담을 넘는 행위를 '대군'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으로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

- 오답 피하기** >> ① 담을 통해 위선과 진실을 구별할 수 있다는 내용은 나오지 않는다.
- ② 궁궐에 보화가 있었다고 해서 담 안의 궁궐을 물질적 욕망이 지배하는 공간이라고 볼 수는 없다.
- ③ '은섬의 대사 중 '한번 궁궐의 담을 넘으면 인간 세상의 즐거움을 알 수 있음에도 저희가 그러하지 않은 것은 어찌 힘이 부족해서였겠습니까?'라는 부분을 통해 궁녀들 또한 담 밖의 세상에 대해 어느 정도의 관심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담 밖의 공간에서도 김 진사와 '특'의 신분적 위계질서가 존재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49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의 감상 ②

달아나면 길할 것이라고 예언한 맹인의 태도는 주인공들의 시련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오히려 의도적으로 소문을 흘려 대군으로 하여금 운영을 폄박하게 만든 '특'의 태도 때문에 주인공들이 시련을 당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 오답 피하기** >> ① 운영도 궁녀의 신분으로 담 너머의 김 진사와 사랑은 나누었다는 측면에서 '대군'을 배신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서술자가 <보기>에서 보듯이 주인공이므로 '특'의 배신만이 부각된다고 볼 수 있다.
- ③ 이 글에서 '특은 벽을 향해 남몰래 웃음을 지었으나, 다른 사람이 그것을 알 리가 없었습니다.'라는 부분을 통해 '특'을 간교한 성격의 인물로 그리고자 하는 서술자의 의도를

읽을 수 있다.

- ④ '비취'의 말 중에서 '주군께서 보살피 주신 은혜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도 깊은지라'라는 부분을 통해 '대군'의 은혜를 인정함을 알 수 있다.
- ⑤ '은섬'의 말을 통해 궁궐 밖의 세상에 대해 알면서도 궁궐을 나갈 수 없다는 금기를 지킬 수밖에 없는 현실의 문제가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50 고사성어의 이해 ②

'명재경각(命在頃刻)'이란 '거의 죽게 되어 곧 숨이 끊어질 지경에 이름'을 의미하므로 '특'이 말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고사성어라 하겠다.

오답 피하기 >>

- ① '내우외환(內憂外患)'이란 '안은 근심 밖은 환난'이란 말로 인간은 항상 근심 속에 살고 있음을 뜻한다.
- ③ '사고무친(四顧無親)'이란 '의지할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음'을 의미한다.
- ④ '오리무중(五里霧中)'이란 '사방 5리가 안개속이다'라는 말로 깊은 안개 속에 들어서게 되면 동서남북도 가리지 못하고 길을 찾기 어려운 것처럼 무슨 일에 대하여 알 길이 없음을 일컫는 말이다.
- ⑤ '자승자박(自繩自縛)'이란 '자신이 만든 줄로 제 몸을 스스로 묶는다'는 뜻으로, 자기가 한 말과 행동에 자신이 구속되어 어려움을 겪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